

## 사회의 재창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찾아서 (2009, 조너던 섹스 지음, 서대경 옮김, 말글빛냄) 서평

김선미\*

조너던 섹스의 '사회의 재창조'는 제일 먼저 제목에서 풍기는 거창함과 500여 쪽에 이르는 분량에 어떤 내용일까 하는 호기심이 자극되어 읽기 시작하였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읽기 시작하였기에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책이라는 정도의 정보만으로 접하게 되었지만 제목만으로는 어떤 책인지 감을 잡기 어렵게 보였다. 저자인 조너던 섹스가 영국 런던의 유대인 대학 총장이자 신학자인 것을 알고는 조금 한 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가 짙은 책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지만,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라는 화두를 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재차 일면서, 그리고 영국에서는 다문화교육에서 종교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언뜻 떠올리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서문에서는 저자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방향성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저자는 차이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세계화 등을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다문화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공공선의 추구이며 어떻게 하면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글이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다문화주의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인가 하는 혼란이 있었으나 일단 유보해 두고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 답을 찾기로 하였다. 모두 3부와 19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제 1부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가'라는 화두로 시작하여 다문화주의의 탄생과 그 사회적 영향의 부정적 측면을 모두 6장에 걸쳐 조목조목 제시

---

\* 순천국립대, 다문화교육, smkim@sunchon.ac.kr

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창조’라는 주제로 7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현재의 사회가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의 문제가 드러남으로 인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학적 이론과 신학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저자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제3부에서는 ‘그 다음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12장에서 19장까지 우리사회가 결속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개념이 강조되어야 하며, 무엇을 중심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역시 예상했던 바대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 해법으로 성서적 관점에서 ‘사회 언약’이라는 개념을 전면에서 드러내고, 사회 언약을 중심으로 어떠한 사회적 에토스가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저자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모두 19장으로 구성된 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제1부 ‘우리는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가’는 1장 사회의 형태: 시골별장, 호텔, 그리고 고향으로서의 사회, 2장 다문화주의의 역사, 3장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자유의 패배, 4장 희생자, 5장 기술과 문화의 분열, 6장 내적 도피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의 형태를 세 가지의 메타포로 제시하고 있는데, 시골별장은 주인이 있고 따뜻하게 환대하는 곳이지만 주인과 낮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사회를 지칭한다. 호텔로서의 사회는 다양한 객실만 존재하고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을 나누거나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사회, 투숙자 간에 주인과 나그네의 구분은 없으나 모두가 낮은 이방인과도 같은 사회이다. 저자인 조너던 섹스는 이상적인 사회가 세 번째 모델인 ‘고향으로서의 사회’임을 주장한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증시되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들 간에 상호 교류가 있는 고향과도 같은 사회 공동체가 이상적인 사회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고향과도 같은 사회가 되도록 복원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조너던 섹스의 이 책에서의 보여주는 노력인 것이다.

조너던 섹스는 지금까지 전개된 다문화주의는 실패했으며, 영국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분열과 갈등을 막아내지 못해서 인종주의,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대로 문화다원론이 실패하여 갈등

과 분열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양상은 소위 말하는 용광로이론(melting-pot)에 의해 주류집단이 소수자를 흡수 동화하려 한 것에 대한 소수자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의 요구가 쉽사리 용인되지 않을 때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문화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사회 분열의 원인으로 볼 것인지, 문화적 권리의 주장이 없으면 갈등이 없으니 문화적 다원론 주장이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저자의 생각과 반대의 입장이 더 타당하게 느껴진다. 조너던 색스는 이 대목에서는 철저한 보수적 입장과 사회적 주류자의 입장에 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문화주의가 오히려 차별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영국에서는 한 때 소수자들의 입장에서 주장되었던 사실을 상기해 보면, 문화다원주의 자체의 문제보다는 실행과정에서 오는 실패, 즉, 3장에서 조너던 색스가 주장한 것처럼,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자유의 패배, 도덕의 파괴와 권력 투쟁의 만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제2부 '새로운 사회의 창조'는 7장 잊혀진 정치학의 고전, 8장 사회적 계약과 사회적 언약, 9장 이야기하기, 10장 책임있는 사회, 11장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진다. 잊혀진 정치학의 고전에서는 자유주의와 사회적 계약의 개념을 떠올리며 새로운 사회의 창조를 위한 저자 나름대로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계약과 사회적 언약의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롭게 창조될 사회는 사회적 계약이 아닌 사회적 언약에 입각한 사회라는 것이다. 조너던 색스에 따르면 언약에 의한 사회란 구약성서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과 같은 사회를 의미한다. 사회의 질서 유지가 법률과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암묵적인 사회 규율, 도덕적 관습 등,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언약과 같은 것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이러한 제시는 역시 신학자다운 종교적 처방으로 인한 사회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자는 사회 분열과 갈등의 문제는 법률과 제도로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식적인 규율, 특히 종교적인 신념과 여기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의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종교적 개념을 끌어들이어 언약이나 종교적 힘과 같은 사회 공동체의식을 강조했다지만 무신론자들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종교적인 신념과도 같은 ‘언약’의 계율이 작동하는 사회를 꿈꾸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너던 섹스는 이어서 언약이 다른 어떤 이론이 풀지 못한 문제, 다민족다문화사회의 화합을 창조하는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이다. 한 사회의 ‘공공선’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는 사회적 언약에 의해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조너던 섹스가 말하는 언약이란 무엇인가? 곧 과거와 전통사회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공공선, 국가 정체성을 찾으려는 사회의 새 창조의 모델을 결국 과거에서 찾으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한다. 언약에 의한 공동체 사회의 강조는 결국 이전의 민족이라는 신화적 이데올로기를 다시 상기시키게 되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의 창조의 모델로서보다는 과거로서의 회귀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게 됨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제3부 ‘그 다음은 어디인가?’에서는 12장 언약의 적용, 13장 나는 누구인가?, 14장 대면적 접근법과 나란히 접근법, 15장 예의의 실천, 16장 다문화주의인가, 관용인가?, 17장 가족의 복원, 18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종교적 변형, 19장 창조를 시작할 때 등의 제목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내용을 끝맺음한다. 조나단은 언약적 사고가 ‘현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사회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결정짓는 어떤 마음의 특성’이라고 정의하지만, 언약이 ‘오늘날과 같은 다중정체성의 시대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상’이라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17, 18장에 제시된 해법으로 가족의 복원과 결혼제도의 붕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결혼의 미래가 종교적인 도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마지막 주장에 이르러서는 읽고 난 후의 약간의 실망감이 앞선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면 필자가 저자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필자의 생각 역시 어떤 시선 속에 깊이 묻혀있기에 나 역시 내 기대와 다른 생각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조너던 섹스의 생각은 가장 전통적인 사회로의 회귀가 다문화주의로 인해 필수불가결하게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주의 현실은 이미 도래된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의 해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주장하는 듯하지만, 어쩌면 다문화주의가 오기 이전의 통합이 아닌, 동화된 사회로의 회귀를 꿈꾸는 듯하다. 역시 새로운 사회의 창조는 정말 새롭지 않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